

경북, 국민체육센터 건립 탄력 문체부 공모 국비 238억 원 확보

경상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공모 사업에서 경북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총 19개 사업을 선정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 국민 누구나 거주지 가까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공공 체육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특히 노후 시설 개선과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체육활동 보장, 장애인 등 체육활동 편의 증진에 목적을 두었다.

도는 이번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다인 238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165억 원) 대비 44% 이상 상승한 수치로 도내 체육 분야 인프라의 질적 향상과 양질의 체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는 경북국민체육센터 1개, 경주시·김천시·문경시·경산시·울릉군이 선정 받았으며 공모 신청한 6개소를 모두 선정 받았다.

또한 2023년부터 시행한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사업을 선정 받은 시설(김천 울빛유치원 등)을 공모해 타 부처 사업과 연계 추진해 지방비를 대폭 절감했다.

특히 도청 신도시에 건립하는 경북국민체육센터는 스포츠컴플렉스지구 조성의 하나로 전체 면적 6000㎡ 규모에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수영장(성인용 25m×8레인),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등의 생활체육시설로 구성한다.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부문에서는 문경 시민운동장 낡은 시설 개보수 등 13건을 선정 받았으며 영주 국민체육센터, 경산체육관, 영덕 군민테니스장, 의성 종합운동장, 봉화 중앙면 생활체육공원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예산을 확보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김용호 기자 yhkim2@skyedaily.com



부산광역시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용도별로 2% 인상한다.

경상북도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부산시, 용도별 2% 인상

부산광역시는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용도별로 2%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원료비 인상, 기온상승에 따른 소비량 감소, 인건비·재료비 상승 등에 따른 공급비용 증가와 고지대·원거리 등 경제성 미달지역의 투자제한 마련에 따른 것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전체의 85~90%를 차지하는 도매요금과 15~10% 소매 공급비용을 합산해 결정된다.

도매요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고 도시가스사의 주택·산업용 소매 공급비용은 시장도지사 승인한다.

용도별로 2% 인상 시 소비자요금은 주택용 기준 매가중(MJ)당 2만3226원에서 2만3691원으로 0.0465원이 인상된다.

따라서 가구당 월평균 56원 수준으로 추가 부담될 예정이다.

김중창 기자 jckim@skyedaily.com

설악산·바다·호수... 10월 속초는 '축제 천국'

'제59회 설악문화제' 엑스포 잔디광장 일원서 4일牌坊 시민의 날 기념식·체험행사·국화전 등 볼거리·먹거리 풍성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가 주최하고 속초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제59회 설악문화제가 '설악으로 하나 되는 속초' 슬로건으로 엑스포 잔디광장 일원에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1966년부터 시작되어 산악제와 체육행사를 중심으로 열려 온 설악문화제는 속초 시민과 관광객의 큰 관심과 사랑 속에 지역주민 참여형 종합문화예술축제로 발전했다.

지난달 29일 사전 행사인 '설악산 등반대회-달마! 능선길 걷기가 500여 명의 탐방객이 방문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2일 설악산 권금성 봉하대에서 설악제례를 행하고 성화를 채화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4일 엑스포 잔디광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개막식은 '2024년 속초시민의 날 기념식'과 통합 개최되며 △제59회 설악문화제 개막선언 △2024년 속초시민의 날 기념영상 상영 △2024년 속초시민대상 시상 △기념사 및 축하 △레이저 미디어아트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축제 2일 차에는 설악문화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인 거리 퍼레이드가 짜짜리요와 함께 하는 마칭쇼(Marching Show)! 라는 이름으로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5일 개최된다. 다양한 퍼포먼스와 함께하는 이번 퍼레이드는 속초시 캐릭터인 짜짜리와 래요를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와 6개 시군(동해시·태백시·삼척시·홍천군·철원군·평강군)과 속초관광수산시장의 캐릭터가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속초 8개 동 주민이 참여하는 속초 명랑 운동회를 통해 주민이 함께 즐기며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이어 오케스트라와 유명 성악가들이 함께하는 필름 콘서트 연애의 정석이 진행되는 설악문화제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날인 3일 차에는 속초를 비롯한 전국의 숨은 트로트 고수가 출전하는 속초 트로트 남버원!이 개최된다. 예선을 통과한 14개 팀이 이날 엑스포 잔디광장



제59회 설악문화제 홍보 포스터. 속초시

치도와 6개 시군(동해시·태백시·삼척시·홍천군·철원군·평강군)과 속초관광수산시장의 캐릭터가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속초 8개 동 주민이 참여하는 속초 명랑 운동회를 통해 주민이 함께 즐기며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이어 오케스트라와 유명 성악가들이 함께하는 필름 콘서트 연애의 정석이 진행되는 설악문화제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날인 3일 차에는 속초를 비롯한 전국의 숨은 트로트 고수가 출전하는 속초 트로트 남버원!이 개최된다. 예선을 통과한 14개 팀이 이날 엑스포 잔디광장



이병선 속초시장 겸 속초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제58회 설악문화제 행사에서 시민들과 퍼레이드를 펼쳤다. 속초시

메인무대에서 경연을 펼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동아시아지방정부관광연맹(EATOP)의 회원 지방정부인 말레이시아 사라와 관광장조산업 공연예술부가 후원하는 '말레이시아 사라와 예술학교'팀이 속초 어린이합창단과 함께 무대를 꾸민다.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할 폐막식은 6일 진행된다. 유명 가수들이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할 계획이다.

축제가 진행되는 기간 중 엑스포 잔디광장에는 50동이 넘는 체험 부스가 설치되어 속초를 테마로 하는 다양한 즐길거리와 체험행사를 제공한다. 4일과 6일은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 에어바운스가 운영되며 이 외에도 한강대회와 길거리 농구대회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되어 속초의 가을을 풍성하게 장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사장 인근 상징탑 광장에서는 2024 속초 음식축제인 '마썬다! 속초'가 진행된다. 속초의 대표 음식인 오징어순대와 막국수·닭강정·순두부·장칼국수 등의 음식이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탄소 중립 실천의 하나로 친환경 축제 용품을 사용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등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속초시의 면모를 방문객들에게 각인시킬 것으로 보인다. 청초호 유원지에서는 10만 분의 국화와 경관조명이 어우러지는 '2024 속초 국화전'이 개최되어 가을 속초의 매력을 뽐낼 전망이다.

이병선 속초시장 겸 속초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시민이 함께 만들어 온 우리 지역의 대표 축제인 설악문화제가 속초를 넘어 강원도의 가을을 대표하는 종합문화예술축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니 많은 시민과 관광객께서 방문하시어 가을의 속초를 즐기고 좋은 경험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cskim@skyedaily.com



강원대가 '2024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유학생 유치 부문에서 전년 대비 40% 증가한 1108명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원대

강원대 외국인 유학생이 돌아왔다

1108명 유치, 전년 대비 40% 증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대가 '2024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유학생 유치 부문에서 전년 대비 40% 증가한 1108명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하며 코로나19 유학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원대는 2019년 총 1026명의 유학생을 유치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2년 745명까지 유학생 수가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대학정보공시에서 학부 250명·대학원 554명·교환학생 133명·어학연수생 247명 등 총 1108명으로 2023년 794명 대비 약 40%의 유학생 수가 증가했다.

특히 2024년 정보공시 기준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에서 3.8%를 기록해 전국 국가거점국립대 중 2위

를 달성했으며 이는 거점국립대 평균 탈락률(6.02%)을 크게 밑도는 수치로 유학생 학업 및 생활 지원체계에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입증했다.

앞서 강원대 국제교류처는 유학생 유치를 위해 'KNU글로벌인재네트워크센터'를 신설하고 외국인 전용학과를 운영했으며 온오프라인 유학박람회와 입시설명회를 매년 10회 이상 개최해 왔다.

김여진 국제교류처장은 "코로나 유행 이후 감소했던 외국인 학생 수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며 강원대의 국제화 역량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을 함께 이루어 글로벌 명문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cskim@skyedaily.com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시도당 위원장 등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첫 공식 행사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가 지난달 30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렸다. 경상북도

영호남 8개 시도, 새로운 성장 공동 협력 '맞손'

이철우 경북지사, 상생협력 간담회 참석... 지방분권·균형 발전 과제·입법 논의

경상북도는 이철우 지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와 시도당 위원장 등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첫 공식 행사로 영호남이 남북권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거듭나기 위한 협력을 위해 마련했다.

회의에 참석한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지방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공동협력 과제와 지역 균형발전 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논의한 공동협력 과제는 △지역 기반 광역비자 제도 시행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공동 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개선 △삼남발전추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이다.

지역 균형발전 과제는 영호남 광역도로망 구축,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이다.

김중창 기자 jckim@skyedaily.com

김해 국도 58호선 일부 구간 4일 개통

부산국도관리청, 무계~삼계 5.9km 공사 완료

경상남도 김해 남북을 연결하는 국도58호선 일부 구간(무계~삼계 5.9km)이 4일 오후 2시 조기 개통된다.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은 경남 김해시 추촌면 선지리에서 김해시 삼계동을 잇는 국도 58호선 무계~삼계 구간의 공사를 마치고 조

기 개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통으로 삼수적인 도심 내 교통체증을 크게 해소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1월에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조기 개통하는 만큼 행사장을 찾는 선수단 및 관계자



추촌교차로~대박분기점 구간. 부산국도청

들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김중창 기자 jckim@skyedaily.com